

“다시 태어나도 가수로 포교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 법사 '가요인생 50년' 책으로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이유?



'수석사의 여성'을 부르던 20대대의 모습.

50년. 한 사람의 생애에서 반세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긴 시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살았다면 그 또한 흔한 일이 아니다. '수석사의 여성' '영산강 처녀' 등 민요풍 노래로 가요계를 휩쓸었던 불자가수 송춘희 법사가 '가요인생 50년'을 회고하는 책을 내고 11월 28일 일흔 번째 생일 파티를 겸한 조촐한 축하 자리도 마련해 지인들과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화려한 가수생활을 부처님 법 전하는 일로 회향하고 있는 송 법사가 내 회고록의 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가수가 되리라> (도서출판 담계).

“에 다시 태어나도 가수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찬불가를 부르며 세계인을 상대로 포교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저녁노을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일생을 노래와 포교 그리고 봉사의 길을 걷고 이제 환혼기를 맞은 송 법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지난 50년의 가수생활이 '보살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원로 작곡가 반야월 선생은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노래로써 마음의 양식을 소복소복 담아 준 여장부”라고 송 법사의 보살행을 증언했다.

“영산강 처녀”를 작곡한 송운선 선생은 “세상풍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글 서글한 웃음과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잃지 않고 대중과 함께 해온” 점에 박수를 보냈다. 그밖에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문화로 바뀐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역”(작곡가 김점도)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가수”(방송인 송해) “늘 기동감고 큰언니같은 선배”(가수 김상희) “큰 불심으로 직접 보살의 삶을 행하시는 분”(가수 남진)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실천으로 보여 주신 선배”(가수 박일세)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끝이 없다.

#50년간 1000곡 부른 '한류' 원조 꿈 많은 소녀 송춘희는 대학을 못간 것이 못내 서글퍼 낙담의 세월을 보내다가 동네에 들어 온 악극단에 들어가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 등에는 어린 동생을 업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오디션은 보러갈 정도로 순진무구했던 소녀는 악극단의 고달픈 생활에서도 늘 즐겁고 발랄하게 지냈다. 매사에 철저하고 아무진 탓에 주변의 사랑을 받았고 연예인으로 뜰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찾아왔다. 찾아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소녀는 6년 만에 라디오 드라마 '남산골 샘님' (1963년) 주제를 히트시키며 가수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해 일본 거류민단의 초청으로 일본에서 공연을 해 교포와 일본인들로부터 감재를 받았다. 일본에 '한류 열풍'을 일으킨 원조인 셈이다.

베트남으로의 월남파병 장병 위문공연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해외 공연 길을 누비던 송 법사는 지난 50년 동안 1000여곡을 불렀다. 물론 '뜬 노래'도 많다. '수석사의 여성' '영산강 처녀' 등은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랑을 받고 있으며 노래비도 세워졌다.

#남을 위한 길 자신을 위한 길

캐나다 공연 길에서 만난 광옥스님(봉덕사 주지)과 미국에서 만난 송산스님(前 화계사 주지)은 송 법사의 인생을 바꿔 놓은 스승들이다. 광옥 스님과 인연으로 불교 교리를 접했고 송산 스님은 '백련화(白蓮華)'라는 법명을 지어주며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를 배우는 과정에서 송 법사는 나누고

배우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됐고 교통사고와 위암 수술 등 고난을 극복하며 보살의 길을 더 열심히 걷는 원력을 세웠다.

불교를 접하기 전에도 송 법사는 보살행을 했다. 예를 들면, 월남 파병용사 위문공연 때 빨래 해 둔 속옷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다. “전투에 나가는 장병들이 여자의 속옷을 가지고 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훔쳐 갔을 것”이란 말을 들은 송 법사는 다음 공연 때 속옷을 100장이나 준비해 갔다. 다른 가수들에게도 각자 100장씩 준비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1991년 백련장학회'를 만들어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 적성사 등 여러 군법당 건립을 주도해 온 송 법사. MBC 10대 가수상을 비롯 가수로서의 최고상도 여러 번 거머쥐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행을 펼쳐 법무부 장관 표창패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패, KBS 선행상, 교정대상 등에서 화관문화훈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들이 송 법사의 이력을 장엄해 준다.

그러나 송 법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워한다. 그 아쉬움은 남은 나날들도 이 뜻을 위한 나날로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임연태 기자

군 부대·교도소 등
봉사로 '바쁜 나날'
장학회 15년째 운영



노래하고 포교하며 살아온 50년을 한권의 책으로 묶고 남은 날 더 정성껏 봉사하며 살것을 서원하는 송춘희 법사. 사진=고영배 기자



대한불자가수회 전국불자노래지랑 개최

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극장은 불자 가수들의 잔치 한마당으로 변화한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홍국·사진)는 11월 28일 불자가수회 창립 15주년 기념 법회 및 제5회 대한불자가수회 가요제 전국불자노래지랑 결선대회를 12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법어를 하고, 흥승기 사장(불교방송)이 축사를, 대한가수협회 남진 회장이 격려사를 한다.

2부 무대는 김홍국씨를 비롯한 불자가수

들의 축하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3부는 12명의 가요제 결선 출전자들의 경연무대로 준비된다. 가요제에서는 불보살 법보상 수상 보현상 정진상의 5명을 뽑아 가수협회에 등록시키는 등 가수가 되는 길을 마련한다.

김홍국 회장은 “15년 전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공중파도 놀라게 하면서 창단했던 불자가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법회와 공연무대 준비에 더욱 정성을 다했다”며 “불교방송 흥승기 사장의 도움으로 불자가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로를 모색중인만큼 불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2006 숨은 예인 한마당'



임현미씨가 선보이는 '마고할매'.

서울여성플라자가 아트룸 봄에서 12월 15일 오후 7시30분 '2006 숨은 예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무대에서는 전주산조예술계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성 스님의 퍼포먼스, 범성 스님의 소리마당, 무용수 임현미

김옥희씨의 춤을 선보인다.

바라춤 등 불교 의식무와 의례를 연구해 온 범성 스님은 2000년 전국무용제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무용뿐만 아니라 전주술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남대 국악과에서 피리를 전공한 범성 스님은 '광주 출정가' '꽃아 꽃아' '삼진강' 등 주옥같은 노래를 발표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님의 소리를 한껏 즐길 수 있다.

2002년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로 선정됐던 무용가 임현미씨는 한국 춤의 호흡과 정서로 현대춤을 추는 춤꾼으로 평가 받는다. '전통 현대탈 학예극'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끈 김옥희씨는 짙은 해학이 깔린 감각적인 춤사위로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꾸민다. (02)810-5025 김지연 기자

국립창극단 창극 '청' 공연

인천에 심청의 효심이 울려 퍼진다. 국립창극단의 창극 '청(淸)'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2월 9~10일 공연된다.

200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처음 공개된 '청'은 11월 국립극장에서 창극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국가브랜드 공연이다. 기존창극에서 볼 수 없었던 7.5도로 기울어진 무대를 선보이는 '청'은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펼친 풍긴다. 음악에서도 기존 창극의 한계를 극복했다. 위현악곡으로 극 전체를 아우르고 그 위에 전통적인 수성음악이 절묘한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 안숙선과 차세대 주자인 유수정이 도창으로 극을 이끈다. (02)762-9190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이차

해발 3,000m 이상에서 생산된 자연산 아생곡목(견련산)



최상의 보이차와 고품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차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떨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차 아생지: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상그리라' 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인원: 佛龕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작수인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상 정산에 위치한 황룡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담곡색, 황도색



불교 다이어리북 (2007년)

매일 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인 소개되고 절에 가는 날이 표시 되어있어 편리한 2007년 불교 다이어리북



가격: 7,500원

· 사이즈: 표지 14.5×19.5cm, 속지 13×19cm
· 사찰 및 단체명 (레이저 음각)
· 인쇄: 100권 이상 무료, 100권 미만시 6만원 추가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2004-8215